

HEADLINE NEWS

재난·위기 대비 캠페인 「Ready New York」 실시 (뉴욕)

미국 뉴욕시는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eady New York」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재난대비지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7월부터 5개의 라디오와 TV에서 유명연예인들이 안내 방송을 시작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위기관리국은 시민단체와 함께 「A Household Preparedness Guide」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에서 재난 대비를 위해 휴대할 수 있는 가방, 가정에 비치할 구급상자, 재해대피계획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 지침서를 영어,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제작해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위기관리국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재난·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위기관리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ww.nyc.gov/html/oem/html/readynewyork/ready_home.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신규개발구역 내 보행로 설치 의무화 조례 마련 (앨라배마주: 셀비 카운티)
- ② 폭염 대비책으로 시립도서관을 냉방센터로 이용 (휴스턴)

도시환경

- ③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웹사이트 개편 (애틀랜타)
- ④ 청정연료 자동차에 도심주차시설 무료이용 혜택 (미국: 샌호세)

도시교통

- ⑤ '나홀로 차량'의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권 인터넷 경매 통해 판매 추진 (시애틀)
- ⑥ 노령운전자의 편의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지침 개정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 ⑦ 보행자 안전 위해 형광 도로경고표지판 설치 (오클랜드)
- ⑧ 시민 이용 확대 위해 「Park & Ride」 요금 동결 (런던)

사회복지

- ⑨ 장애인 종합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동경)
- ⑩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Back-to-School」축제 개최 (댈러스)
- ⑪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에게 무료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시 (미국: 세인트루이스시)

행.재정

- ⑫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위해 '전자공회당' 개설 (피츠버그)
- ⑬ '화재경보기 작동 확인' 캠페인 전개 (오스틴)

① 신규개발구역 내 보행로 설치 의무화 조례 마련 (앨라배마주: 쉘비 카운티)

미국 앨라배마주 쉘비(Shelby) 카운티는 새로 개발되는 구역 내에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개발구역 면적이 15,000 평방피트 이상 1에이커(acre) 이하인 지역은 적어도 도로 한쪽면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15,000평방피트 이하인 주거지역에서는 도로 양쪽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의 완충지대로 약1.5m의 'green space'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 동선 내 연석의 높이를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도 설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보도 포장시 환경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향후 계획되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www.al.com/news/birminghamnews/index.ssf?/xml/story.ssf/html_standard.xml?/base/news/105947039347850.xml)

② 폭염 대비책으로 시립도서관을 냉방센터로 이용 (휴스턴)

미국 휴스턴시는 8월 5일부터 폭염대비계획(Heat Emergency Plan)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대비기간 동안 모든 사람은 더위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55세 이상 성인과 5세 이하 어린이는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외출을 삼가고 냉방시설이 된 곳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시는 폭염을 피할 마땅한 냉방시설이 없는 시민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공원·여가시설 등 냉방 장치가 있는 시설을 냉방센터(cooling center)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냉방센터로 가기 위해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민원전화서비스 '311'에 요청하면 시전역에 있는 11곳의 냉방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냉방센터는 주중에는 물론 주말에도 개방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ww.ci.houston.tx.us/cityhighlights/coolingcenters.htm)

③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웹사이트 개편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인 「Clean Water Atlanta」의 웹사이트 (www.cleanwateratlanta.org)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개편된 웹사이트에는 34억 달러가 소요되는 시의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Hot Topics', 'Hot Projects'라는 코너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식과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Geographical Reference'라는 코너에서는 인터넷상의 지도를 통해서 해당지역의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기관의 분기별 회의록과 협정관련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다.

「Clean Water Atlanta」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하류지역에서도 깨끗한 하천과 정화된 폐수가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장기종합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을 통해 10년 내로 가장 깨끗한 도시하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atlantaga.gov/homepage/PressReleases/cleanwatsite070703.htm)

④ 청정연료 자동차에 도심주차시설 무료이용 혜택 (미국: 샌호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세(San Jose)시 교통부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도심에 있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청정연료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을 장려하고, 청정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솔린과 전력을 연료장치로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청정연료 자동차로 포함시켰다. 청정연료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2001년부터 무료주차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지만, 일반자동차의 2배가 넘는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기여하고, 가솔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www.ci.san-jose.ca.us/dot/whatsnew/hybrid/index.htm)

5 '나홀로 차량'의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권 인터넷 경매 통해 판매 추진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는 '나홀로 승용차' 및 상업용 차량 등에 대해 다인승 전용차로 (HOV lane)의 이용을 허용해 주는 대신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행료 책정을 위해 민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은 통행료 수준을 시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장원리에 맡겨, 이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수입을 증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교통당국은 한정된 양의 다인승 전용차로 1개월 통행권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www.csmonitor.com/2003/0717/p14s01-sten.html)

6 노령운전자의 편의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지침 개정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미국 오하이오주 교통부는 노령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지침을 대폭 개정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노령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주교통부는 우선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경사지 및 곡선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가 쉽도록 도로설계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는 이미 올 초부터 도로공사구간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1992년 이후로 주의 85세 이상 노령운전자 수가 2배로 급증하여 현재 약 8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www.cleveland.com/news/plaindealer/index.ssf?/base/news/1060335781303230.xml)

7 보행자 안전 위해 형광 도로경고표지판 설치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는 최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도로경고표지판을 노랑/녹색의 형광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표지판은 시계(視界)가 좋지 않은 새벽, 황혼 등에 표지판 선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는 새로운 표지판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자주 다니는 간선도로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인 150개의 구(舊)표지판은 반사력과 재활용 가능성을 측정하여,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새로운 도로표지판으로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 재사용한다.



(www.aucklandcity.govt.nz/news/council/200306/22/a04.asp)

8 시민 이용 확대 위해 「Park & Ride」 요금 동결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현행 「Park & Ride」 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런던 지하철은 지난 2년간의 요금 동결에 이어 3년 연속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진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시민들 또한 하루 3파운드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Park & Ride」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주말 특별요금이 확대 적용되어 대부분의 역에서 하루 1파운드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주말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런던 지하철은 지난 2년간 60여 개 「Park & Ride」 주차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폐쇄회로 티브이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市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역 주변 범죄율이 50%나 격감했다고 한다.

(METRO, 2003. 7. 8)

9 장애인 종합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동경)

일본 東京都는 장애인복지국 주최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18회 장애인 종합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장애인이 제작한 미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를 통하여 장애인의 교양 및 자립 활동을 육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촉진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출품작은 회화, 조형, 사진, 서도, 공예 부문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장애인 문화학교 소개 및 자원봉사자 정보도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다. 이 행사는 都가 주최하고, (재)일본자선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일왕(日王)이 직접 참석하여 표창식을 거행했다.

(www.metro.tokyo.jp/INET/EVENT/2003/08/21d87100.htm)

10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Back-to-School」 축제 개최 (댈러스)

미국 댈러스市와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Back-to-School」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에서는 市공무원, 자원봉사자, 건강관리지원단체가 협력하여 2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학용품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 등 교육·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 축제에 참가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예방주사와 치과 검진과 같은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연방정부의 최저소득지침에 해당하는 市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수입 및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

(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2002_back_to_school_fair.html)

④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에게 무료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시 (미국: 세인트루이스市)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市는 끼니를 학교식당에서 해결하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굶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년 여름에 「SCHOOLS OUT CAF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市사회복지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들에게도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월~금요일에는 문화여가센터, 학교, 교회, 야외공원 등 市전역에 있는 3백여 곳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며,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과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아침식사로 시리얼, 주스, 머핀, 베이글, 우유, 과일 등이 제공되고, 점심식사로 다양한 샌드위치, 과일, 야채, 우유, 주스, 후식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stlc.in.missouri.org/release/getpressdetails.cfm?Auto=515)

④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위해 ‘전자공회당’ 개설 (피츠버그)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와 피츠버그市의회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웹사이트 ‘피츠버그 온라인 정책포럼 (communityconnections.heinz.cmu.edu/forum/index.jsp)’을 개설했다. 市는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市와 그 주변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웹사이트에는 전형적인 토론게시판과 주민설문조사 외에도, 市의 정책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첫 번째 온라인 정책포럼은 市의 재정위기에 대한 주제로 시작되었다. (www.city.pittsburgh.pa.us/pghtownhall.pdf)

④ ‘화재경보기 작동 확인’ 캠페인 전개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소방국은 시민들에게 가정의 화재경보기 작동 확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손가락으로 경보기를 눌러 보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화재경보기를 시험해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市는 2002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화재경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에만 화재로 인해 1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市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고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더라면 사망자 대부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마케팅·광고업체와 함께 슬로건과 마스크트를 만드는 등 ‘화재경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市소방국은 시민들에게 가정의 침실과 복도 등 집안 곳곳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매달 화재경보기를 시험 작동하도록 했으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화재경보기의 건전지를 교체하도록 했다.

(www.ci.austin.tx.us/news/2003/firecampaign_2003.htm)